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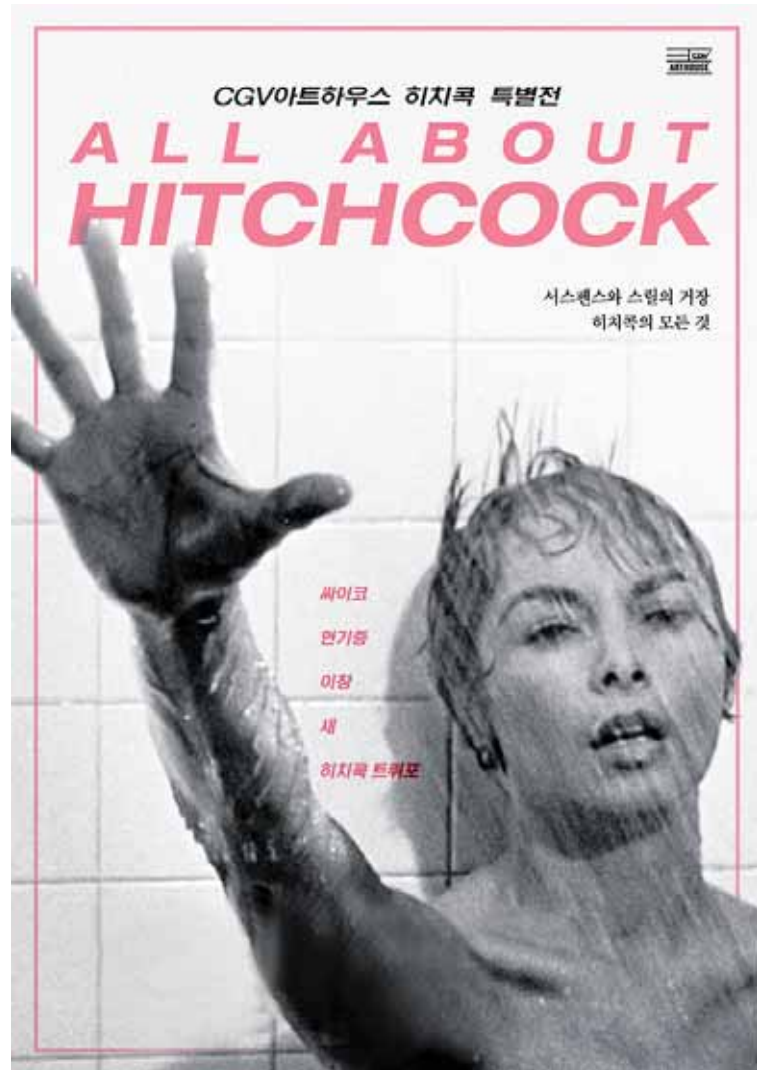
‘스릴러 거장’ 히치콕 다시 만난다



‘이창’ ‘현기증’ ‘사이코’ ‘새’ 등 4편
광주 CGV 터미널점 17일까지 상영
인터뷰 담은 다큐 ‘히치콕 트뤼포’도



‘이창’



‘서스펜스의 대가’, ‘스릴러의 거장’ 세계 영화사를 장식한 알프레드 히치콕(1899~1980) 감독의 영화는 개봉된 지 50여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강렬한 인상을 준다. 사위극 아래 서 있는 한 여인, ‘끼익 끼익’하는 기분 나쁜 금속성 사운드, 사위 커튼이 걸리고 그녀를 살해하는 한 노파, 육조 배수구로 흘러들어가는 피... 영화 사상 최고 명장면의 하나로 꼽히는 ‘싸이코’ 사위실 신이다. CGV 아트하우스는 히치콕의 다섯 작품을 한 자리에 모은 ‘히치콕 특별전(All About Hitchcock)’을 개최한다. 광주에서는 오는 17일까지 CGV 터미널점에서 만날 수 있다. 상영작은 ‘이창’(1954), ‘현기증’(1958),

‘사이코’(1960), ‘새’(1963) 등 4편으로 모두 국내에서 처음 상영되는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이다. 모든 작품에 ‘카메오’ 출연하는 것으로 유명한 히치콕 감독을 영화에서 찾아보는 건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제임스 스튜어트, 그레이스 켈리가 주연을 맡은 ‘이창’은 다리를 다쳐 휠체어에 의지하게 된 사진작가가 주인공이다. 망원경으로 창 너머 건물을 몰래 들여다보는 재미를 들인 그는 우연히 맞은편 건물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목격하고 여자 친구와 사건을 파헤친다. ‘관음증 호러의 교본’으로 불리는 작품으로 카메라가 거의 주인공의 집을 벗어나지 않음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는, 몰입도가 높은 작품이다. ‘현기증’은 고소공포증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에 시달리는 전직 경찰이 그녀와 꼭 닮은 여자를 우연히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제임스 스튜어트와 킴 노박이 주연을 맡았다. 스릴러 영화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이코’는 안소니 퍼킨스와 잭 니키가 주연을 맡았다. 애인과 결혼하기 위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여주인공이 도로변 한 낡은 모텔에 묵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리고 있다. ‘새’는 젊고 부유한 한 여성이 호감을 느낀 남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가공할 새떼들의 공격을 받으며 전개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새들의 공격을 소재로 이유 없는 공포에 대한 현대인의 불안을 그리고 있다. 영화음악 없이 새소리만으로 공포 분위기를 극대화한 연출도 눈에 띈다.

17일에는 특별한 다큐가 상영된다. 프랑스 누벨바그 시대를 연 ‘400번의 구타’의 프랑수아 트뤼포 감독과 히치콕이 1962년 일주일간 진행한 인터뷰를 담은 다큐 ‘히치콕 트뤼포’다. 켄트 존스 감독 작품으로 트뤼포와 히치콕의 50여 시간에 이르는 인터뷰 대담집 ‘히치콕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제작했으며 히치콕이 말하는 히치콕은 물론, 마틴 스콜세지, 데이빗 핀처 등이 전하는 히치콕에 대해 들을 수 있다. 다큐는 25일 공식 개봉한다. 17일까지 매일 1~2편씩 관객들을 만나며 상영 시간은 CG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 안에서 미디어아트를 즐긴다 지산동 카페 ‘커피’ 31일까지 ‘MMM’ 기획전시



이성웅 작 ‘EMPATHY’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카페 ‘커피(COBOC)’에서 미디어 퍼포먼스팀 미디어엑스(신도원, 펑크파마, 폴바주카)가 준비한 화려한 미디어아트 조명과 클럽분위기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전시되고 있는 이들 작품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MMM’ 전시 참가작이다. MMM은 ‘Media art in Mudeung Mountain’을 줄인 말로 ‘무등산 안에서 미디어아트를 즐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품 작가들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

층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공간에서 작업하는 5기 입주작가(김자이·박세희·안유자·이성웅·임용현·미디어엑스팀)들로, 모두 6팀이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기획전시가 열리는 카페 ‘커피(COBOC)’은 무등산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갤러리 겸 문화복합공간으로 광주 문화재단과 지난 2011년 상호 문화행사 협조 등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시 관람은 무료. 문의 광주문화재단 공연전시팀 062-670-7944.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평등 생활역사유물 전시관 확장 개관

유물 227점 갖춰
전시 면적 넓히고
바닥·조명 보강



‘사라져 가는 농촌 공동체 유물이 한 자리에.’ 광주 평등 생활역사유물 전시관이 최근 확장 개관했다. 광주 광산구 평등주민센터 옆에 자리한 전시관은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원주)를 구성해 꾸민 공간으로 지난해 6월 처음 문을 열었다. 전시관에는 주민들에게 기증 받은 씨레, 쟁기, 베를 등 생활·농경 유물 227점

이 전시돼 있으며 아이들의 교육 장소로,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확장은 전시관 면적을 41.87㎡에서 73.7㎡로 넓히고, 바닥과 조명을 보강하는 등 관람 편의를 배려해 이뤄졌다. 또 주민들이 재료를 모아 벽화를 그려 넣는 등 또 다른 볼거리도 만들었다. 문의 062-960-78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12일 음악평론가 임진모씨 초청 ‘사람책’ 강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오는 12일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사진)씨를 초청, ‘사람책 강연’을 진행한다. 2016 청소년상상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광주 시 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되는 행사다. ‘사람책’이란 사람이 책이 되어 자신의 전문지

식이나 경험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번에도 진행되는 강연이다. 오후 7시 ACC 극장3에서 열리는 강연에서 임씨는 자신의 청소년 시절 음악에 대한 열정과 도전이야기, 현대 대중음악의 계보와 흐름, 팝 음악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들려

준다. 오후 6시 30분에는 어쿠스틱 밴드 ‘센치한 버스’ 공연이 진행되며 강연 중간에도 다양한 음악과 영상이 준비돼 있다. 무료 행사. ACC 홈페이지(www.acc.go.kr) 등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일반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2-601-4026. /김미은기자 mekim@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 400여점 전시

제2회 화순~광주 동구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2016년 8월 15일(월)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 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 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 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소아르 갤러리 앞)
코 스 | 화순 소아르 갤러리~너릿재~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종 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 가 비 | 25,000원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입금기준)

주최 | 광주일보사·마라톤세상
주관 | 화순군육상협회·마라톤세상
후원 |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보훈청